

어린이 한복(전통한복, 생활한복)에 관한 조사연구

- 경남지역 마산·창원시 거주 어린이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

정혜경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A Survey on the Korean Costume(*Traditional Hanbok, Saenghwal Hanbok*) for Children

Hye-Gyung Chung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2003. 4. 16 투고)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wearing experience, the taste and attitudes toward Korean Costume(Traditional and Saenghwal Hanbok).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 from 307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307 mother during 7, 2002.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Hanbok was worn mainly in the first birthday of children and 6~7years old. But it was rarely worn in 4th~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Most of children had worn the Traditional Hanbok, about 30% had worn the Saenghwal Hanbok.
2. Childrens liked Saenghwal Hanbok more than Traditional Hanbok, girls liked Hanbok more than boys did. And 31.4% of boys disliked Hanbok, the main motives for dislike were concerned with the discomfort to move, the feel of cloth and becoming.
Boys preferred the style of 'vest/ Jeokori/ Baji' in Traditional Hanbok, and 'half-sleeve Jeokori/ Baji' in Saenghwal Hanbok. Girls preferred the style of 'Dangeui/ Chima' in Traditional Hanbok, and 'One piece/ Jeokori' in Saenghwal Hanbok.
Childrens preferred analogous color scheme to contrasting color scheme. Boys preferred the blue groups, girls preferred the orange and red groups.
3. Childrens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Saenghwal Hanbok than Traditional Hanbok. Mothers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s both these types. And the attitudes toward Saenghwal Hanbok and Traditional Hanbok of childrens were more positive than mother's.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may b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Hanbok for children.

1. Hanbok is need to be designed considering activity, feeling and becomingness for teenagers.
2. Hanbok design must be kept seperated Traditional Hanbok and Saenghwal Hanbok. Traditional Hanbok ia need to emphases tradition, Saenghwal Hanbok is need to apply a western style and have a practical use.

Key words : Traditional Hanbok(전통한복), Saenghwal Hanbok(생활한복), Jeokori(저고리), Baji(바지), Chima(치마), Dangeui(당의)

I. 서 언

최근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민족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표현하려는 욕구와 의식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장르의 한복으로 등장한 생활한복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 생활한복이 전통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세대로 의 계승이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다음세대인 어린이들은 전통을 이어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어린이들의 한복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었으며, 성인한복이나 어린이 의복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어린이 한복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로는 관심의 부족 혹은 자료수집이나 조사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겠다. 다행히 최근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전통과 미래라는 두 개의 세계를 엮어갈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어린이 한복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리하여 어린이 한복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연구¹⁾와 더불어 실생활의 측면에서 어린이 생활한복 디자인 실태분석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²⁾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그동안 어린이 한복에 대한 연구가 부차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각각에 대해 연구되어왔던 한계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린이 한복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어린이 한복에 대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인지능력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령후기 아동으로 하였으며, 어머니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성별 및 세대간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한복(전통한복, 생활한복)의 착용 실태를 조사한다.

둘째, 어린이 한복에 대한 선호도 및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성별 및 세대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셋째, 한복에 대한 태도를 심리적, 미적, 실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성별 및 세대간의 차이에 따라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어린이 한복에 대한 연구

어린이 한복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성인 한복에 대한 연구나 어린이 의복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성인한복에 대한 조사 연구는 각 시기에 따라 주제가 변화되었는데, 70년대에는 착용실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때에는 성인의 입장에서 어린이 한복에 대한 조사도 일부 이루어졌다. 80년대에 들어서서는 실태 조사에서 벗어나 한복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평가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후 90년대에는 새롭게 시작된 생활한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최근 어린이 한복에 대한 연구는 전통한복의 토대를 정립하고자하는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제적인 의생활 측면에서의 어린이 생활한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 한복의 착용 실태와 어린이의 한복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생활한복 디자인에 대하여 조사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석항(1978)³⁾은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복 착용실태에 관해 조사하면서 어린이에게 한복을 입히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조사자중 '실날 명절 때 입힌다'는 응답이 53.9%, '거의 안 입힌다'는 응답이 39.7%, '평상시 한복을 입힌다'는 응답이 6.3%로 한복 착용율은 약 60%에 이르렀다.

장은숙(1980)⁴⁾은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을 조사하면서 한복 소유현황과 한복에 대한 태도, 형태와 색채 및 질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아동이 한복을 소유한 비율은 28.2%로 매우 낮았으며, 주로 도시지역과 여아 그리고 상류층에서 소유한 경우가 많았다. 한복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남아는 '그런 대로 입을 수 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여아는 '불편하다' '항상 입고 싶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한복을 항상 입고 싶은 이유로는 한복의 색과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질감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양정은·유송옥(2000)⁵⁾은 성인 생활한복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어린이 생활한복에 대해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13세 이하의 아동만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전문점의 비율은 3.5%에 불과하였다. 또 업체에서 선호하는 아동복의 색상은 원색이 많았고 그 다음은 파스텔톤과 자연색 순인 반면, 성인복의 색상은 자연색이 가장 많아 차이가 있었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한복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나윤신(1999)⁶⁾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생활한복 소지율은 약 21%에 이르렀으며,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색상이었으며 그 다음은 모양, 촉감, 그림(무늬)의 순이었다. 선호하는 색상은 남아는 하늘색> 파랑색> 녹색이었으며, 여아는 분홍색> 하늘색> 흰

색의 순이었으며, 상하 배색은 서로 다른 색상을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형태로는 남아는 허리바지형에 주름이 없는 것, 여아는 허리 스커트형에 주름이 적당히 있는 것이었다. 무늬를 좋아하여 남아는 전통동물 무늬> 동물무늬> 줄무늬, 여아는 동물무늬> 줄무늬> 꽃무늬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정혜경·이미정(2003)⁷⁾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 생활한복은 등장시기인 90년대 중반부터 전통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시도 등 다양한 형태가 선보였으나, 1997년도 이후부터는 다양한 변화와 더불어 특히 복고풍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어린이 생활한복 디자인은 대체로 성인 생활한복 디자인의 변화와 맞물려서 같이 변화해 온 것으로 밝혀져 어린이 한복으로서의 독특성이 더욱 요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것, 동정, 진동선, 포켓 등에 있어서 여아 저고리의 경우에 더 많은 변화가 시도되었으며, 남아 저고리의 경우 더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실태조사와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것으로서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한복 착용율과 소지율은 낮은 편이었으나, 90년대 말 한복 소지율은 생활한복 소지율로 미루어 보아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어린이 생활한복은 디자인상에 있어서 성인의 것과 유사하게 발전하였으며, 90년대 후반에 그 형태가 정착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2. 한복에 대한 태도 연구

한복에 대한 태도는 초기에는 한복에 대한 인식이나 의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는데, 태도는 인식이나 의견에 비해 비교적 일정한 영속적 경향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강혜원(1979)⁸⁾은 한복에 대한 태도를 심리적 및 실제적 측면으로 체계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심리적 측면 중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정혜경(1982)⁹⁾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전통형

과 변화형¹⁰⁾ 한복에 대한 태도를 미적·심리적·실용적·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변화형 한복보다 전통형 한복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한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연령만이 유의하였으며, 한복에 대한 태도는 한복 착용도와 상관($r=0.45$)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인희(1997)¹¹⁾는 도시 여성의 한복에 대한 태도를 2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첫번째 요인은 '한복에 대한 자부심'으로 태도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며, 두번째 요인은 '한복 착용 의사'로 태도의 의도적 요소이다. 그 결과 '한복에 대한 자부심'이 '한복 착용의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복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그 외 한복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미지 평가 문항들은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홍병숙(1988)¹²⁾은 한복과 양장의 이미지를 비교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한복의 이미지는 양장에 비해 더 우아하고, 화려하며, 산뜻하고, 밝고, 정돈감 있고, 고급스럽고, 차별하며, 눈에 띄고, 단정하고, 매력 있고, 아름답고, 곡선적이며, 어울리고, 독특하며, 품위 있고, 화려하며, 촌스럽고, 비활동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혜원·고애란(1991)¹³⁾은 전통한복으로부터 양장에 가까운 한복응용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6개 자극물에 대한 인상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의 전통성은 모든 인상요인에 영향을 미쳐 한복응용 스타일(생활한복)이 전통한복보다 더 보기 좋고, 품위가 있으며, 현대적이며, 실용적이라고 지각되었다.

또 정인희 등(2000)¹⁴⁾은 생활한복의 이미지를 '개성적이다' '세련되었다' '단정하다' '활동적이다' '편하다' '품위 있다' '우아하다' '젊어 보인다'의 8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생활한복의 주된 이미지는 편하고 개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한복 자체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태도보다는 소비자 스스로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한복의 이미지를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최은영(1999)¹⁵⁾은 생활한복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있어서 자기 이미지와 상품이 주는 자기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10개의 형용사-개성이 강한, 품위있는, 지적인, 유행에 민감한, 전위적인, 화려한, 활동적인, 세련된, 노숙한, 혁신적인-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전체집단은 생활한복은 품위있고 지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데 만족시켜주며, 활동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상적 이미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노숙한 이미지는 기피하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한복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는 대부분 감정적, 인지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품위있다' '개성적이다' '현대적이다' '편하다' '실용적이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0년대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한복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변화된 한복(응용 스타일이나 생활한복)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어린이 생활한복의 착용 실태와 선호하는 디자인 및 생활한복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없는 내용은 어머니들이 응답하도록 하여 두 세대가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예비조사는 2002년 7월초에 마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하여 6학년 한 학급의 남녀 학생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 내용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

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과 그 어머니로 경상남도 마산시 소재 2개 초등학교와 창원시 소재 2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688부를 배부하여 648부를 회수하였으나, 어린이와 어머니의 짝이 맞지 않은 것과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614부(어린이 307부, 어머니 307부)가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된 것이다. 질문지의 내용은 한복착용에 대한 실태조사, 선호도와 선호하는 디자인, 한복에 대한 태도, 인구통계학적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복 착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린이가 한복을 착용했던 시기, 착용용도, 착용했던 한복의 유형, 한복 소유수, 구입처에 대한 것이며,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어머니에게 질문하였다. 그리고 선호하는 한복 디자인, 향후 구입하기 원하는 한복의 유형, 한복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와 어린이 모두에게 조사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성별 및 세대간의 차이에 따라 분석되었다.

설문지 내용 중 선호하는 한복의 유형은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으로 구분되었으며, 한복의 형태는 잡지와 업체의 카탈로그(16)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즉 남아의 경우에는 전통한복을 4가지 형태(저고리·바지형/ 조끼·저고리·바지형/ 마고자·저고리·바지형/ 두루마기·저고리·바지형)로, 생활한복을 4가지 형태(저고리·바지형/ 조끼·저고리·바지형/ 마고자·저고리·바지형/ 반소매 상의·바지형)로 분류하였다. 여아의 경우에는 전통한복을 6가지 형태(저고리·치마형/ 배자·저고리·치마형/ 마고자·저고리·치마형/ 당의·치마형/ 반두루마기·저고리·치마형, 두루마기·저고리·치마형)로, 생활한복을 6가지 형태(원피스형/ 원피스·저고리형/ 허리치마·저고리형/ 원피스·저고리·조끼형/ 원피스·마고자형/ 반소매 상의·바지형)로 분류하였다. 이 한복의 형태는 그림과 의복 명칭을 함께 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

게 하였다.

한복에 대한 태도는 한복 자체에 대한 이미지뿐 아니라 자신이 입었을 때 느끼게 되는 자기 이미지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설문 내용은 선행연구들을 수정 보완하여 어머니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문항은 모두 14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다시 심리적, 미적, 실용적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F-test, 상관관계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와 그 어머니로 이루어졌다. 어린이의 수는 307명으로 남아 140명(45.6%)과 여아 167명(54.4%)이었으며, 어머니의 수는 어린이와 짝을 이루어 역시 307명이 되었다.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수입 등 일반적 속성은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을 때 다음과 같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대부분 35~45세에 속하였으며 39세 이하가 127명(41.4%)이고 40세 이상이 177명(57.6%)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201명(65.3%)이고 대졸이 83명(26.9%)로 대부분 고졸 이상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151명(49%), 전문직이 41명(13.1%), 판매서비스직 39명(12.7%), 자영업 37명(12%), 생산기능직 24명(7.8%), 사무직 11명(3.6%)이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80명(26.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23명(40.2%), 200만원 이하가 94명(30.6%)이었다.

2. 어린이 한복의 착용실태

1) 착용시기

어린이가 한복을 입었던 시기를 돌, 2~3세, 4~

5세, 6~7세,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6~7세(69.4%)와 돌 때(64.5%)가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5세(53.4%), 초등학교 저학년(43.0%), 2~3세(37.5%)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낮았다(17.9%). 돌 때의 한복 착용율이 높은 것은 돌이 통과 의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6~7세는 취학전 학습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서 유치원 등에서의 학습활동 중 한복을 입을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착용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때에 급격한 신체 성장과 심리적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착용용도

어린이들이 그동안 한복을 착용한 용도로는 명절이 가장 높았으며(78.2%), 그 다음은 학교나 기타 기관의 공식적인 행사(45.0%), 집안의 잔치(29.0%) 순이었으며, 그 외의 용도로는 착용율이 매우 낮았다.

한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앞으로 한복을 입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용도에 대해 질문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명절이 가장 높았으며(52%), 그 다음은 집안의 잔치(21%), 제사 및 장례식(9%)의 순이었다. 특별히 제사나 장례식에 한복을 착용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서 전통예식에 한복을 착용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3) 착용했던 한복의 유형

어린이들이 그동안 착용했던 한복의 유형을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전통한복을 착용하였으나, 생활한복 착용율도 남아와 여아 모두 29.9%에 이르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역시 생활한복을 착용한 경험이 31.5%로 비슷하였다.

4) 한복 소유 수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복의 수를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통한복은 한 벌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44.3%, 한 벌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55.7%이었으며, 생활한복은 한 벌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15.6%였다. 하지만 응답자에 해당되는 고학년 시기에 17.9%만이 한복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한복 소유 수와 착용도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조사되었던 한복 소지율과 비교해 보면 1980년의 28.2%¹⁷⁾에 비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활한복의 경우 1999년도에 21%의 소지율¹⁸⁾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인데, 이는 조사지역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5) 한복 구입처

한복 구입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재래시장(44.6%)과 한복전문점(44.3%)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물려받은 경우(29.0%)도 적지 않았다. 한편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0.7%)는 매우 적어 보수적인 구매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지방의 특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6)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의 분별여부

본 연구에서는 한복을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으로 구분하여 어린이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 두 유형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었으며, 이는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먼저 조사하였다. 어린이들에게 본인이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남아는 54.8%, 여아는 그보다 높은 74.3%가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후의 문항에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의 그림을 제시하여 질문하였다. 하지만 어린이의 한복 유형에 대한 지식 여부는 다른 조사내용과는 상관이 매우 낮아 질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 어린이의 한복 착용실태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착용 시기a	둘	198(64.5)	구입처a	재래시장	137(44.6)		
	2~3세	115(37.5)		한복 전문점	136(44.3)		
	4~5세	164(53.4)		백화점	31(10.1)		
	6~7세	213(69.4)		맞춤	15(4.9)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132(43.0)		통신판매	2(0.7)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55(17.9)		선물	23(7.5)		
착용 용도a	명절(설, 추석)	240(78.2)	착용했던 한복의 유형	물려받음	89(29.0)		
	집안의 잔치(결혼식, 어른생신)	89(29.0)		빌려입음	13(4.2)		
	자녀의 생일	45(14.7)		한복이 없음	6(2.0)		
	집안의 제사, 장례	17(5.5)		남	전통한복	81(63.8)	
	학교, 기타 기관의 공식적인 행사 (입학식, 졸업식 등)	138(45.0)			생활한복	9(7.1)	
	기타	27(8.8)			모두 착용함	29(22.8)	
착용하지 않음					8(6.3)		
입지 않았다	19(6.2)	계		127(100)			
소유수	전통한복	0벌		171(55.7)	여	전통한복	107(68.2)
		1벌		117(38.1)		생활한복	12(7.6)
		2벌		15(4.9)		모두 착용함	35(22.3)
		3벌		3(1.0)		착용하지 않음	3(1.9)
		4벌	1(0.3)	계	157(100)		
	계	307(100)	남	분별할 수 있다	74(54.8)		
	생활한복	0벌		259(84.4)	분별할 수 없다	61(45.2)	
		1벌		44(14.3)	계	135(100)	
		2벌		4(1.3)	여	분별할 수 있다	124(74.3)
		계	307(100)	분별할 수 없다		43(25.7)	
				계	167(100)		

a: 복수응답 결과임 * 무응답은 결과에서 제외함

2. 한복 선호도와 선호하는 한복 디자인

1) 한복 선호도

어린이의 한복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남아는 보통(47.9%), 좋아하지 않는다(31.4%)는 응답이 많았으며, 여아는 좋아한다(45.5%), 보통(40.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한복을 선호하였으며, 한복을 좋아하지 않는 남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31.4%)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복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남아 44명, 여아 24명)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여 보았다. 그 결과 '활동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은 '촉감이 좋지 않다' '입기가 힘들다'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여아는 활동성과 촉감에 민감하였으며, 남아는 활동성과 촉감뿐 아니라 아이에게 어울림에도 민감하였다.

<표 2> 한복을 싫어하는 이유(N=68)

	남아	여아	합계	
			응답수	응답율
활동하기 불편하다	36	21	57	83.8
촉감이 좋지 않다	19	10	29	42.6
입기가 힘들다	20	7	27	39.7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21	12	21	30.9

* 복수응답 결과임

한복의 활동성은 그동안 생활한복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촉감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소재뿐만 아니라 옷에 부착된 동정 등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지적된다. 또 남아의 15.5%가 한복은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그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어린이 한복 디자인 개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2) 선호하는 한복의 유형

어린이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어린이 한복의 유형을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 한복의 유형

앞으로 한복을 구입하게 된다면 선택하고 싶은 유형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본 결과 남녀 어린이 모두 생활한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전통한복, 그리고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는 응답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11.4%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생활한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좀 더 낮았으며, 전통한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어머니 세대(57.8%)가 어린이 세대(42.6%)보다 생활한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생활한복을 접할 기회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활동성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어머니는 자신의 한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생활한복(44.2%)을 전통한복(38.6%)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의 형태

어린이와 어머니가 선호하는 한복의 형태를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시 남아복은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각 4종류씩, 여아복은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각 6종류씩 선정하여 그림과 의복명을 제시하였다.

① 남아와 남아 어머니가 선호하는 한복의 형태

남아와 어머니가 선호하는 전통한복의 형태는 ‘조끼·저고리·바지형’(남아 46.8%, 어머니 52.9%)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어린이는 ‘두루마기·저고리·바지형’(21.6%)과 ‘마고자·저고리·바지형’(20.9%)을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는 반면, 어머니는 ‘마고자·저고리·바지형’(38.2%)을 더 선호하며 두루마기에 대한 선호도(2.2%)는 매우 낮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머니와 어린이 모두 비교적 간소한 차림의 한복을 원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전통적이며 예복의 성격이 강한 두루마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한복의 경우 남자 어린이는 가장 변화가 많은 형태인 ‘반소매 상의·바지형’(44.6%)과 ‘조끼·저고리·바지형’(35.3%)을 선호하였다. 그에 비해 어머니는 ‘조끼·저고리·바지형’(42.6%)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고리·바지’(25.7%)형, ‘반소매 상의·바지형’(19.1%), ‘마고자·저고리·바지형’(12.5%)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어린이는 전통한복은 전통성이 강한 것을, 생활한복은 변화가 있으며 실용적인 형태를 선택하여, 각각의 특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반면 어머니는 전통한복이나 생활한복 모두 별 차이가 없이 보편적인 형태의 한복을 선호하여 세대간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의 이러한 특징은 앞으로 두 유형의 한복이 상호 차이가 분명한 형태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② 여아와 어머니가 선호하는 한복의 형태

여아 어린이가 선호하는 전통한복의 형태는 ‘당

<표 3> 어린이와 어머니가 선호하는 어린이 한복의 유형

N(%)

	남아	여아	합계	남아 어머니	여아 어머니	합계
전통한복	29(23.0)	51(31.3)	80(27.7)	33(24.1)	58(35.4)	91(30.2)
생활한복	57(45.2)	66(40.5)	123(42.6)	88(64.2)	86(52.4)	174(57.8)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19(15.1)	34(20.9)	53(18.3)	8(5.8)	10(6.1)	18(6.0)
구입하지 않겠다	21(16.7)	12(7.4)	33(11.4)	8(5.8)	10(6.1)	18(6.0)
합계	126(100.0)	163(100.0)	289(100.0)	137(100.0)	164(100.0)	301(100.0)

* 무응답은 결과에서 제외함

<표 4> 남아와 어머니가 선호하는 한복의 형태

		남아		남아 어머니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통 한복	저고리·바지형	15	10.8	9	6.6	24	8.7
	조끼·저고리·바지형	65	46.8	72	52.9	137	49.8
	마고자·저고리·바지형	29	20.9	52	38.2	81	29.5
	두루마기·저고리·바지형	30	21.6	3	2.2	33	12.0
	합계	139	100.0	136	100.0	275	100.0
생활 한복	저고리·바지형	12	8.6	35	25.7	47	17.1
	조끼·저고리·바지형	49	35.3	58	42.6	107	38.9
	마고자·저고리·바지형	16	11.5	17	12.5	33	12.0
	반소매 상의·바지형	62	44.6	26	19.1	88	32.0
	합계	139	100.0	136	100.0	275	100.0

* 무응답은 결과에서 제외함

의·치마형'(45.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두루마기·저고리·치마형'(반두루마기·저고리·치마형 포함, 21.6%), '저고리·치마형'(18.7%)의 순서였다. 즉 어린이는 전통한복의 경우 예복의 특성이 강한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선호하는 형태는 '당의·치마형'(33.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저고리·치마형'(25.3%)과 '배자·저고리·치마형'(23.5%)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최근 확산되고 있는 당의가 앞으로 더욱 보편화 될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한복의 경우 어린이와 어머니 모두 '원피스·저고리형'(여아 52.4%, 어머니 42.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세대간에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는 다른 디자인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는데 비해, 어머니는 '원피스형', '원피스·조끼형', '허리치마·저고리형'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한편 변화가 많은 '반소매 상의·바지형'의 생활한복은 선호도가 낮았으며, 어린이의 경우에도 남아에 비해 남아 여아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여아는 전통한복은 전통성이 강한 것으로, 생활한복은 서양복을 응용하면서도 전통성을 지닌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여아가 선호하는 한복의 형태는 남아에 비해

<표 5> 여아와 어머니가 선호하는 한복의 형태

		여아		여아 어머니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통 한복	저고리·치마형	31	18.7	41	25.3	72	22.0
	배자·저고리·치마형	15	9.0	38	23.5	53	16.2
	마고자·저고리·치마형	8	4.8	13	8.0	21	6.4
	당의·치마형	76	45.8	54	33.3	130	39.6
	두루마기·저고리·치마형	18	10.8	15	9.3	33	10.0
	반두루마기·저고리·치마형	18	10.8	1	0.6	19	5.8
	합계	166	99.9	162	100	328	100
생활 한복	원피스형	16	9.6	35	21.3	51	15.5
	원피스·저고리형	87	52.4	69	42.1	156	47.3
	허리치마·저고리형	14	8.4	18	11.0	32	9.7
	원피스·조끼형	20	12.0	30	18.3	50	15.1
	원피스·마고자형	15	9.0	10	6.1	25	7.6
	반소매 상의·바지형	14	8.4	2	1.2	16	4.8
합계	166	99.8	164	100	330	100	

* 무응답은 결과에서 제외함

<표 6> 어린이가 선호하는 한복의 색상

명(%)

	빨강색 계열	주황색 계열	노랑색 계열	초록색 계열	파랑색 계열	보라색 계열	흰색	회색	검은색	합계
남아	13 (9.4)	6 (4.3)	2 (1.4)	14 (10.1)	60 (43.5)	6 (4.3)	19 (13.8)	9 (6.5)	9 (6.5)	138 (100.0)
여아	31 (18.7)	38 (22.9)	26 (15.7)	9 (5.4)	28 (16.9)	18 (10.8)	14 (8.4)	1 (0.6)	1 (0.6)	166 (100.0)
합계	44 (14.5)	44 (14.5)	28 (9.2)	23 (7.6)	88 (28.9)	24 (7.9)	33 (10.9)	10 (3.3)	10 (3.3)	304 (100.0)

* 무응답은 결과에서 제외함

어린이와 어머니간에 차이가 적었다. 이는 어린이와 어머니가 같은 여성이러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복의 색상

어린이가 선호하는 한복의 색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아가 선호하는 색상은 파랑색 계열(43.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흰색(13.8%), 초록색 계열(10.1%)이었다. 그에 비해 여아는 적색 계열이 41.6%(주황색 계열 22.9%, 빨강색 계열 18.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파랑색 계열(16.9%), 노랑색 계열(15.7%)이었다. 무채색 계열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지만 흰색을 선호하는 정도는 전체의 10.9%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나운신(1999)의 연구¹⁹⁾에서 선호하는 색상이 남아는 하늘>파랑>녹색, 여아는 분홍>하늘색>흰색이라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남아의 경우는 비교적 일치하지만 여아의 경우는 최근 주황색 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유행색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하의의 배색에 대해서는 상하를 비슷한 색으로 배색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남아 48.2%, 여아 53.6%), 그 다음으로는 상하를 다른 색으로 배색하겠다(남아 31.4%, 여아 31.3%)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상하의를 같은 색으로 하겠다는 응답은 매우 낮았다.

4) 한복에 착용하기 원하는 부속품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을 때 함께 갖추어 입고 싶은 부속품을 알아보기 위하여 8가지 품목- 머리에 쓰는 것, 머리에 묶는 땀기, 머리에 꽂는 장식, 머리 모양, 장식 노리개, 주머니, 한복용 신발(꽃신 등), 버선-을 나열한 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하였다. 그중 비교적 응답률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에는 머리에 쓰는 것(20명), 주머니(17명)가 가장 많았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땀기(21명), 머리에 꽂는 장식(10명), 머리에 쓰는 것(7명) 등으로 대부분 머리장식을 원했다.

5) 한복 구입시 의견 참고자료

한복을 구입할 때 누구의(어떤) 의견을 참고하겠느냐는 질문에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아는 상점의 진열품(36.9%)을 가장 많이 참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 의견(17.3%), 신문·잡지·T.V광고(13.1%), 연예인의 옷차림(10.3%), 상점의 안내책자(6.1%), 친구의 의견(3.3%), 판매원의 의견(1.4%)의 순이었다. 그에 비해 여아는 상점의 안내책자(15.2%), 연예인의 옷차림(14.2%), 상점의 진열품(14%), 신문·잡지·T.V광고(14%), 친구의 의견(12.2%), 판매원의 의견(11.4%), 가족의 의견(10%)이 참고자료로서 각각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남아는 여아보다 상점내의 진열과 같은 시각적인 것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향이며, 여아는 인적-비인적 환경을 모두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복에 대한 태도

어린이와 어머니가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각각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를 심리적, 미적, 실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어린이의 성별 및 어린이와 어머니 세대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1) 어린이의 한복에 대한 태도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에 대한 어린이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전통한복보다 생활한복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두 유형의 한복에 대하여 남아보다 여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복에 대한 태도 문항을 심리적 측면 5문항, 미적 측면 5문항, 실용적 측면 4문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전통한복의 경우 심리적 측면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실용적 측면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미적 측면에는 여아만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생활한복의 경우에는 실용적 측면> 심리적 측면> 미적 측면의 순으로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어린이들은 전통한복의 경우 생활한복 보다 심리적 측면에서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외 미적 실용적 측면에서는 생활한복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각 문항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통한복의 경우 '품위가 있다' '세련되었다' '고급스럽다' '전통미가 있다' '멋있다' '어린이에게 어울린다'는 문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생활한복의 경우 '편안하다' '활동적이다' '시대감각에 맞다' '어린이에게 어울린다'는 문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긍정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어머니의 한복에 대한 태도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전통한복(M:3.24)과 생활한복(M:3.24)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초의 연구에서 개량한복보다 전통한복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²⁰⁾, 생활한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 90년대 초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한복 응용 스타일(생활한복)이 전통한복보다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나²¹⁾ 본 연구는 최근 두 유형의 한복이 모두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한복에 대한 태도를 어머니의 연령별, 교육수준별, 생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생활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는 몇 문항에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을 39세 이하, 40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태도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통한복의 경우에는 '활동적이다'는 문항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M:2.29)이 낮은 집단(M:2.09)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생활한복의 경우에는 '점잖은 느낌이다'는 문항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M:3.54)이 높은 집단(M:3.33)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전통한복이 비활동적이며, 생활한복이 점잖은 느낌을 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 졸업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복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통한복의 경우에는 '개성있다'는 문항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표 7> 어린이의 성별에 따른 한복에 대한 태도

	전통한복					생활한복				
	남아		여아		t-value	남아		여아		t-value
	M	SD	M	SD		M	SD	M	SD	
심리적측면	3.90	0.66	4.20	0.59	-4.19***	3.44	0.77	3.53	0.72	-1.07
미적 측면	2.99	0.79	3.29	0.68	-3.61***	3.28	0.80	3.52	0.74	-2.80**
실용적 측면	2.75	0.73	2.70	0.78	0.51	3.43	0.84	3.62	0.80	-2.08*
전체	3.25	0.59	3.45	0.55	-3.10**	3.38	0.68	3.55	0.60	-2.41*

*p<.05 **p<.01 ***p<.001

<표 8> 어린이와 어머니의 한복에 대한 태도 비교

		어린이		어머니		t-value
		M	SD	M	SD	
전통 한복	심리적 측면	4.06	0.65	3.84	0.61	4.90***
	미적 측면	3.15	0.76	3.35	0.55	-4.03***
	실용적 측면	2.71	0.75	2.41	0.71	5.64***
	전체	3.35	0.59	3.24	0.48	2.81**
생활 한복	심리적 측면	3.48	0.75	3.31	0.68	3.23***
	미적 측면	3.41	0.78	3.33	0.62	1.52
	실용적 측면	3.53	0.82	3.13	0.81	6.98***
	전체	3.47	0.64	3.27	0.55	4.75***

p<.01 *p<.001

집단(M:3.60)이 낮은 집단(M:3.37)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생활한복의 경우에는 ‘품위가 있다’는 문항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M:3.44)이 높은 집단(M:3.22)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전통한복이 더 개성적이며, 생활한복은 품위가 덜하다고 평가하였다.

3) 어린이와 어머니의 한복에 대한 태도 비교

어린이와 어머니 두 집단 간에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에 대한 태도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대부분의 문항에서 어린이 집단이 어머니 집단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전통한복의 경우 ‘개성 있다’ ‘멋있다’ ‘어울린다’는 항에서 어머니가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생활한복의 경우 ‘어린이에게 어울린다’는 항에서만 어머니가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한복에 대한 태도를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을 때 생활한복의 미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어린이 집단은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의 경우 모두 심리적·실용적 측면에서 어머니 집단보다 긍정적이었다. 어머니 세대는 다만 전통한복의 미적인 측면에서만 어린이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전통한복에 대하여 어린이는 어머니보다 미적인 측면에서 낮은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낮은 반응을 보인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점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어린

이들이 한복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한복의 발전방향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 생활한복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전통한복을 포함하여 한복 착용실태와 선호하는 디자인 및 한복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어린이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 한복 착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복 착용 시기는 6~7세(69.2%)와 둘 때(64.3%)가 매우 높았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낮았다(17.9%). 착용용도는 명절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공식적인 행사, 집안의 잔치 순이었다. 대부분 전통한복을 많이 착용하였고, 생활한복 착용율은 약 30%에 이르렀으며 이는 어머니의 생활한복 착용율과 비슷하였다. 한복 소지수는 전통한복을 한 벌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42.2%였으며, 생활한복을 한 벌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15.6%였다. 한복 구입처로는 재래시장과 한복전문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물려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2. 한복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한복을 선호하였으며, 한복을 좋아하지 않는 남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31.4%)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복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는 ‘입고 활동하기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은 '촉감이 좋지 않다'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으로 지적되었다.

앞으로 한복을 구입하게 될 때 선택할 유형으로는 남녀 어린이 모두 생활한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42.6%)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아, 세대별로는 어머니의 응답율이 더 높았다.

3. 선호하는 한복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남아 전통한복의 형태는 '조끼·저고리·바지형'(남아 46.8%, 어머니 52.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마고자형'이었다. 한편 전통적이며 예복의 성격이 강한 두루마기에 대한 선호도는 어린이가 어머니에 비해 매우 높아 세대간 차이를 보였다. 생활한복의 경우 남자 어린이는 '반소매 상의·바지형'과 '조끼·저고리·바지형'을 선호하였다. 그에 비해 어머니는 '조끼·저고리·바지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여아와 어머니가 선호하는 전통한복의 형태는 '당의·치마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두루마기나 반두루마기·치마형'으로 예복의 특성이 강한 것을 선호하였다. 생활한복의 경우 어린이와 어머니 모두 '원피스·저고리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변화가 많은 '반소매 상의'의 생활한복은 남아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여아가 선호하는 한복의 형태는 남아에 비해 세대간에 차이가 적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남아와 여아 모두 전통한복은 전통성이 강한 것을 선호하였으며, 생활한복은 남아의 경우 변화가 있으며 실용적인 형태를 선택하였고 여아의 경우 서양복을 응용하면서도 전통성을 지닌 것을 선호하였다.

4. 남아가 선호하는 색상은 파랑색 계열(43.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흰색(13.8%), 초록색 계열(10.1%)이었다. 그에 비해 여아는 주황과 빨강 계열이 41.6%(주황 계열이 22.9%, 빨강 계열이 1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파랑 계열(16.9%), 노랑 계열(15.7%)이었다. 상하의의 배색은 비슷한 색상 배색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은 다른 색으로 배색하는 것이었다.

한복을 입을 때의 부속품으로 남아는 머리에 쓰는 것과 주머니를 선호하였으며, 여아는 땀기 머리장식과 머리쓰개를 선호하였다.

한복 구입시 얻는 정보원으로 남아는 상점내의 진열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여아는 인적·비인적 환경을 모두 활용하였다.

5. 어린이는 전통한복보다 생활한복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생활한복의 경우 실용적 측면> 심리적 측면> 미적 측면의 순으로 모두 긍정적 태도를 보인 반면, 전통한복의 경우 심리적 측면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미적 측면에는 여아만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의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에 대한 태도는 모두 긍정적이었으며, 두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80년대에는 전통한복이, 90년대에는 생활한복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최근 두 유형의 한복이 모두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린이와 어머니 두 집단 간에 태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대부분의 문항에서 어린이 집단이 어머니 집단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전통한복에 대하여 어린이는 어머니보다 미적인 측면에서 낮은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낮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는 경남지역의 마산, 창원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어린이 한복 착용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어린이의 한복 착용율이 낮은 이유는 추후 더 심도있게 탐색되어야 할 것이지만, 학동후기의 심리적 신체적 변화 등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디자인상이나 신체 발달 측면에서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10대 연령층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조사하고, 길이 성장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녀 어린이 모두 생활한복에 대한 선호도

가 높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복에 대한 태도 역시 전통한복보다 생활한복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었다. 다만 남아의 경우 한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으므로(31.4%), 그 이유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활동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하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촉감의 재질을 사용하고, 10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 한복에 있어서 앞으로의 한복 발전 방향은 전통한복은 전통성이 강한 디자인을, 생활한복은 서양복을 응용하면서도 전통성을 지닌 디자인이나(여아의 경우) 변화가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을(남아의 경우) 선택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성이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한복에 있어서 두 유형의 한복이 80년대, 90년대에 비해 모두 긍정적으로 발전된 이유 역시 이러한 차별화된 발전방향을 모색해 온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석주선기념박물관 편 (2000).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 지윤영·홍나영 (2001). 광복이후 첫들 복식의 변천. 한국의류학회지, 25(9), pp. 1681-1692.
- 조희진 (1998). 첫들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례적 의미.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나운신 (1999). 학령기 아동의 생활한복 디자인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이미정 (2003). 어린이 생활한복 저고리 형태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pp. 75-87.
- 3) 장석향 (1978). 한복 착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복식, 2, pp. 65-72.
- 4) 강은숙 (1980).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위와 사회계층간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7-54.
- 5) 양정은·유승욱 (2000). 생활한복의 디자인 현황과 고급화 방안 연구. 복식, 50(3), pp. 145-159.
- 6) 나운신, 앞의 글.
- 7) 정혜경·이미정, 위의 글.
- 8) 강혜원 (1979).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서울의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7(3), pp. 1-11.
- 9) 정혜경 (1982). 한복에 대한 태도 및 착용 변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당시 변화형 한복은 A형으로 재단된 한복 치마나 현대적 미의 장식이 가미된 한복을 말하며, 따라서 오늘날의 생활한복과는 다른 것이다.
- 11) 정인희·최선행·강순제 (1997).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에 대한 의식. 복식, 35, pp. 253-264.
- 12) 홍병숙 (1988). 의미분별척도법에 의한 양장과 한복 이미지 비교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2(3), pp. 373-382.
- 13) 강혜원·고애란 (1991). 여자 한복의 인상형성 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pp. 211-227.
- 14) 정인희외 2인 (2000). 생활한복의 이미지와 가격 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 50(6), pp. 33-46.
- 15) 최은영 (1999). 생활한복의 채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위험지각과 자기이미지를 중심으로-. 복식, 42, pp. 43-58.
- 16) 한복 잡지 「아름다운 우리옷」과 나들잇별, 달맞이, 돌실나이, 질경이, 한맥·한티울의 카탈로그 자료를 사용하였다.
- 17) 강은숙, 앞의 글.
- 18) 나운신, 앞의 글.
- 19) 나운신, 앞의 글.
- 20) 정혜경, 앞의 글.
- 21) 강혜원·고애란, 앞의 글.